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6:60-71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의 떡만을 고집한 자들에게 참 떡을 먹고 영생하도록 온마음을 쏟아 가르쳤다. 오늘날 설교한 사람들은 이처럼 애쓰신 예수님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힘써서 가르치셨지만 무리들의 반응은 결코 좋은 반응이 아니었다. 60절 68절에 나타난다.

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6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설교자는 알아야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11제자들에게 물었다.

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주님, 다른 길, 다른 친구, 다른 철학, 다른 하나님에 대한 견해, 다른 구원, 다른 의미를 가르친자들을 찾아 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가 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만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있고 주님께 남아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I.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죄는 눈을 멀게 하고 노예로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죄는 악영향이지만 속박은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죄는 노예요 죽음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오염 되었지만 무력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부와 권세와 명예를 위하여 로마권세에 빌붙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 하시기 때문에 결코 심판을 하시지 않으신 좋으신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무당을 찾아 가서라도 복만 받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찾아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십자가도 부활도 제림도 깊이 가르치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거듭남의 진리,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 줘서 죄를 이기고 악을 극복하도록 도

움을 주지 않고 종교적인 짐만을 지워 주는 자들에게는 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성령 충만이 기쁨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도 질 수 없는 짐만을 지우는 자들에게는 가자 않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멍애를 매야하면 참 쉽이 있고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참으로 예수님을 힘써 가르치지 않는 교화들이 많이 있다.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교화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잘 가르치지 않는 교화가 많이 있다. 복음의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 치지 않고 하나의 가계를 운영하듯이 하는 교화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들을 이웃집 가게운영하는 아저씨라고 말한다고 한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는 다닐만한 교회가 없어 고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고는 있지만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견디다 못해 가나안 교인이 되고 있는 사람이 점차 불어 나고 있다. 이것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뉘게로 가야 하는가?

Ⅱ.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자에게 가야한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쳐 줘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가르쳐 주는 자에게 가야 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한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말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아무도 예수님처럼 말한 적이 없었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행동한 사람이 없었다. 그토록 강하고 온유하고, 강인하고 부드러우며, 권위 있고 온화하고, 심오하고 단순하며, 강력하고, 기꺼이 죽임을 당하고, 정의롭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말 없이 견디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참을성이 있고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고 학대 아래서도 기꺼이 침묵을 지키며 십자가에서 불타는 심판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분이시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는 자들에게 우리는 가야 할 것이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유익된 일이 어디가 있겠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것이다.

아주 유익한 예화 한토막을 소개 하고자 한다.

세계 제 2차 대전중에 한 벨기에 낙하산 군명이 독일 군들에게 붙잡혀 독방에 갇히게 되었다. 그 옆방에는 한 벨기에 목사가 갇혀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벽으로 가로 막혀 있었으나 벽에 모르스 암호를 두드려서 서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음을 그들이 곧 알수 있었다. 그 병사가 암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 자신과 홀로 있는 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목사가 대답을 보냈다. “홀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목사는 병사가 영적으로 비참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하여 밖에 있는 한 친구로 하여금 병사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도록 했다. 오래지 않아 그 군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가 벽을 암호로 두드려 그 사실을 목사에게 알렸

다. 그 군인이 사형당하는 날이 와서 그가 감방에서 끌려 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두들겼다.
“저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가 아닙니다.”

암호로도 이와 같은 생명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진정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게 체험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이 넘쳐 흘러 교회다니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한다.

이런 찬송을 매일 부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1)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후렴: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죄 사함받고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주의얼굴 뵈기전에
멀리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3)높은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예수 모신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